2020. 1. 30. (목) 언론보도

기호일보

2020년 01월 30일 (목)
사설/칼럼 11면

파주 리비교 DMZ 평화의 길로 거듭난다

DMZ 평화의 길은 강화군에서 파주시를 거쳐 강원 고성군까지 접경 지역을 경유하는 동서 횡단 도보 여행길 조성 사업으로 파주시가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를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인근에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올부터 내년 말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거점센터 사업 구간은 총 501㎞ 중 파주시 DMZ 평화의 길(동패동~문발동~성동리~임진각~두지리)은 67㎞로 이곳 리비교 주변 군 막사를 리모델링하고 일부 건물을 신축해 카페, 전망대, 여행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건립한다.

리비교는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져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이 다리는 1950년 대전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사후 훈장을 받은 미군 리비 중사의 이름을 따 정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4일 미군 공병대가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건설된 이후 민통선 영농민들이 사용해왔으나 지난 2016년 10월 초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다. 60여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리비교는 이번 진단으로 폐쇄 결정 후 보존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파주시가 지난해부터 리비교 인근에 이 같은 조성 방안을 계획한 뒤 올해 평화의 길 거점센터를 짓기로 해 최근 경색된 남북화해 및 평화의 밑거름을 다지게 된다.

이곳에는 향후 거점센터 외에 민간인 통제구역을 경유하는 도보 여행길 자선도 개발됨은 물론 임진강 주상절리도 볼 수 있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돼 파주시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진행돼 우리 국민 10만여 명이 개성관광을 다녀왔지만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12년간 중단된 개성관광 재개를 대북협력사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파주 DMZ 평화의 길과 접목한 북한 관광사업을 꾀할 필요가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관광 재개로 이를 연계한 사업은 개성관광 실현의 첫 번째 관문을 넘은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성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로서 도가 200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해왔던 만큼 향후에도 그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경기일보

2020년 01월 30일 (목)
종합 02면

'DMZ평화공원' 조성 박차… 경기도 南北평화 '마중물'

경기관광공사 '관광, 새로운 길을 찾다' 주제 포럼 개최
전담 TF팀 구성… 공원·개성관광 실행 계획 등 구체화

경기관광공사(사장 우동규)가 경기도의 평화협력정책에 맞춰 민선 7기 내에 DMZ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다. 관사는 민간 전문가·관광업계와 함께 DMZ평화공원 조성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TF팀을 구성,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관광공사는 2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평화관광지원센터에서 '경기도 관광,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경기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관사 공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같 혁신과 부흥산 배출을 통한 지역형 수익사업 발굴을 경기투표로 나서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박대이라를 활용한 사구관광 협력, DMZ 평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DMZ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방안'과 '경기관광 활성화 브랜드로 관광벨트' 다섯 명사에는 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 관광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임서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DMZ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전'의 주제발표로 나선 박은은 국립생태원 실장은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박지호 인천공항전문대학 교수는 "세계 유일 DMZ만의 독특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 관계자는 "DMZ는 외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앞으로 세계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경기도와 손잡고 DMZ평화공원 조성 더 나아가 개성관광 재개에까지 관광분야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당장 전문가, 관광업계와 함께 DMZ평화공원 조성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 오후에 진행된 '경기관광 활성화 포럼'에서 공사는 '경기도 관광벨트 활성화 사업', '박이이라 활용 사구관광 협업', DMZ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도민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있는 고민해야 한다"며 "DMZ 관련해서는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관련 시·군 등 복심 이해관계자들이 대화가 있어야 한다면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물 도의원은 "공사보다 지속가능한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중심 홍보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DMZ를 두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 로 역인 관광객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이 DMZ가 나아갈 구체적 방향성과 대안이 현실이 되는 소중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범호기자